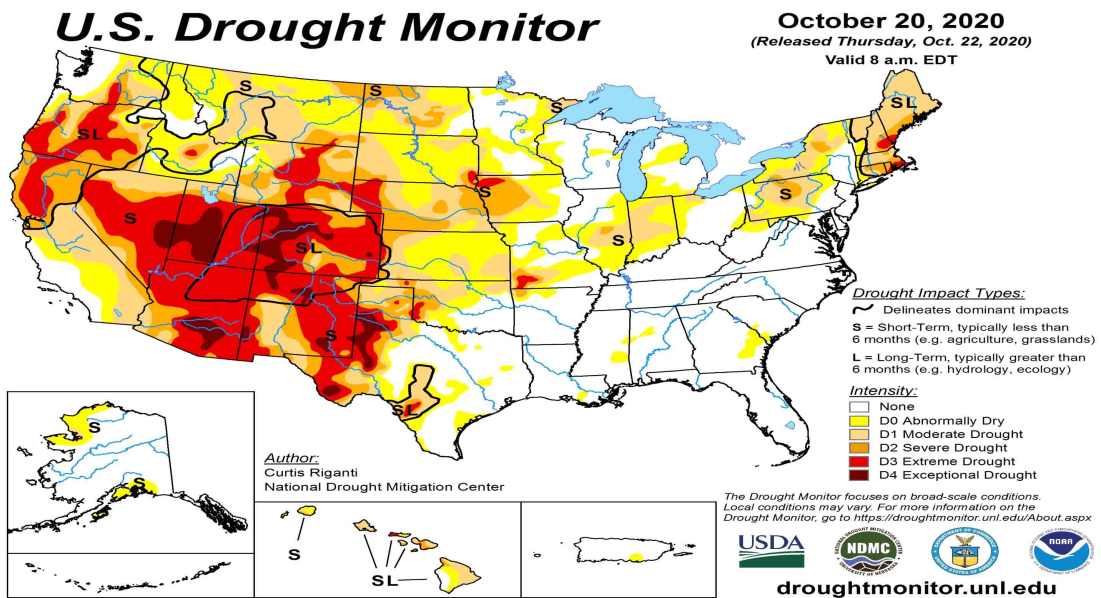


10월 2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43)

□ 미국 기후 현황(10/18~10/24)

역사적으로 추운 날씨 (계절의 아주 초기에)와 겨울같은 폭풍이 북부 전역에서 야외 작업과 겨울 밀 성장이 단축시켰고, 한편 지역적으로 강하게 내린 강수 (비와 눈)가 중서부의 옥수수수와 대두의 수확 속도를 급격히 둔화시켰다. 그러나, 북부의 강수는 표토의 수분을 상승시켰고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출현 중인 겨울 밀을 위해 단열 효과를 내었다. 몬타나와 남북 다코타주들 서부의 일부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0° F 이상 낮았고 평원의 북부 절반과 중서부 상부를 포함하는 더 넓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최소 10° F 낮았다. 몬타나에서 오대호 위쪽 지역에 있는 여러 위치에서는 기온이 일주일 내내 40° F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로키산맥과 고원의 북부 구역에서는 주말로 가면서 0° F 이하로 급강하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고원 중부와 남부까지 주말 내내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방목지, 목초지 및 겨울 밀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가했다. 콜로라도 주(州) 그랜비 호수 근처에서는 강풍이 이스트 트러블섬 산불에 부채질을 하는 바람에 10월 14일 발화한 이 불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크기가 19만 2,000 에이커 이상이 되었다. 콜로라도는 지금까지 올해 현대사에서 가장 컸던 세 차례의 산불을 경험했고, 한편 캘리포니아는 여섯 번의 가장 큰 불길 중에서 다섯 번을 견뎌내었다. 캘리포니아 북부, 텍사스 남부, 포 코너스 지역, 남부 및 동부 전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들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 F 가량 높았다. 기타 지역 중에서 남부는 좋은 날씨가 짧은 기간 지속되다가 간헐적으로 내린 소나기 때문에 지역에서 수확이 지연되는 일이 일어났다. 8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열대 폭풍 베타와 허리케인 로라, 샬리 및 델타로 부각된) 날씨가 습한 양상을 보이면서 남부에서는 야외 작업이 제한되었고 작물의 품질이 지역적으로 감퇴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 (10/19~10/25)

오대호, 대평원, 태평양 북서부 및 로키산맥 북부 대부분에 평년 이하의 기온이 기록되었다. 평원 북부와 로키산맥 북부의 큰 지대에서는 평년보다 15° F 이상 낮은 기온이 주목할만 했다. 대조적으로, 캘리포니아, 대서양 중부, 미시시피 계곡, 북동부, 남동부, 남서부 및 텍사스의 대부분이 평년보다 더 따뜻했으며 이들 지역 대부분이 평균보다 5°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미국 서부 절반의 대부분이 평년보다 더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지만 태평양 북서부, 평원 북부 및 로키산맥 북부의 일부에서는 평년 이상의 강수량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대서양 중부와 북동부의 대부분이 평년보다 더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다. 대조적으로, 오대호, 미시시피 계곡 및 남동부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 평년보다 많은 양의 강우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10/18~10/24)

■ 유럽: 남서부 재배 지역에서 지역적인 폭우가 내린 중에 유럽 대륙 대부분에서 소나기가 계속되었다. 최근 불안정한 날씨가 한동안 지속되는 중에 중유럽과 북유럽 대부분에 걸쳐서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 (2~45 mm)가 겨울 작물을 위해서 적당하거나 풍부하게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하지만 아주 습했던 가을의 첫 두 달 이후에 따라온 유럽 남동부 전역의 건조한 조건들이 야외 작업에 도움을 주었다; 불가리아 북부에서부터 북쪽으로 독일 북동부와 폴란드 중부까지 내린 60일 총강수량은 평년의 100~250%였다. 한편, 느리게 움직이던 한랭 전선 하나가 이베리아 반도의 중서부에 걸쳐서 강하거나 과도한 강우 (25~270 mm)를 발생 시켜서 단기 건조를 없애주었지만 국지성 홍수를 일으키고 야외 작업을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는 스페인의 겨울 밀과 보리의 이른 활착 전망에 전반적으로 유익했으며 여름 작물들을 위한 관개 공급도 상승시켰다. 유럽의 많은 곳들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 C 높았고 평년보다 낮은 곳 (평년보다 1~2° C 이하)은 최남단 재배 지역들 뿐이었다.

■ 구소련(서부): 수많은 주요 겨울 밀 지역들에 여전히 극심한 가뭄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기는 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일부에는 8월 초 이후로 내린 첫 번째 비가 절실히 필요했던 토양 수분을 제공해주었다. 이번 주초에 변동폭은 컸지만 유익했던 소나기 (2~40 mm)가 러시아 남서부를 뒤덮으면서 8월 초부터 이들 지역을 지배해왔던 극심한 가뭄에서 잠시 피할 수 있었다. 그 소나기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러시아 주요 겨울 밀 주들에서는 8월 5일 이후로 내린 비가 평년의 25% 미만에 머물렀고 볼고그라드 (남부 지구의 북부)는 평년의 15%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이와 비슷하게 우크라이나 동부에는 - 이곳도 더 많은 비가 필요하지만 - 가볍거나 적당한 소나기 (2~22 mm)가 보고되었다; 이번 주의 강수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 이후로 이 지역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33%에 불과했다. 그 비가 대체로 환영받은 것은 확실했지만, 러시아 남서부와 우크라이나 동부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에서 벗어나려면 훨씬 더 많은 강수량이 필요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 중서부 전역에서는 맑은 하늘이 여름 작물의 수확과 겨울 작물의 출현을 촉진했으며 겨울 작물의 출현율은 10월 초에 내린 폭우로 인한 토양 수분 개선의 혜택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몰도바에서는 10월 상반기에 내린 폭우 덕분에 겨울 밀 전망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 지역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 C 높아서 최근 수분 개선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겨울 밀 활착 지대가 확대되었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와 남부 전역에서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만연하여 여름 작물의 수확과 겨울 작물의 파종을 도왔다. 하지만 화북평원에서는 밀의 활착 촉진과 추가 관개의 필요성 때문에 더 많은 비가 내리면 좋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양쯔 계곡의 기록적인 여름 강우가 유체의 활착을 위한 토양 수분을 확실히 풍부하게 해주었다. 동부와 남부에서는 기온이 대체로 평균 근처 내지 이하였고 겨울 작물의 발아와 출현에 적당하게 충분히 따뜻했다.

■ 호주: 건조한 날씨가 서호주 밀 벨트의 북부 지역을 계속 덮고 있어서 겨울 작물의 건조와 조기 수확을 촉진했다. 서호주 최남단에서는 국지적으로 내린 소나기 (최대 10 mm)가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의 종실 비대에 필요한 약간의 수분을 제공하여 지역 수확량 잠재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은 호주 남부와 동부에 광범위한 비 (10-50 mm)가 지역의 야외 작업을 중단시켰을 수는 있지만 미성숙한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에게 유익했다. 또, 그 비는 고압계도 표토 수분을 상승시켜주어서, 여름 작물의 발아와 출현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한편, 면화와 수수의 파종이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밀 벨트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평년에 가까워서 (대체로 평년의 1° C 이내) 늦겨울 작물과 초여름 작물 발달에 유리했다.

■ 아르헨티나: 소나기들이 여름 곡류와 유지 작물의 발아에 필요한 수분을 적기에 공급해주었는데 다만, 서부 농업지역에서는 그 수분이 너무 늦어서 겨울 곡류들의 수확량 전망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중앙 및 북동부 생산 지역의 총강우량은 10-50 mm 였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 중부 및 동부 지역에는 더 많이 비 (100 mm에 근접)가 내렸다. 농작물들이 이미 가뭄의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코르도바의 중부 및 남부 농업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대체로 25 mm였다; 또한 그 비가 내리기 전에 주초에 잠깐 반짝했던 짧은 폭염 (곳곳에서 최고 온도가 40° C에 도달)이 작물들에게 스트레스를 가했다. 한편, 북서부 (살타와 인근에 있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차코, 및 포르모사 내 장소들)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일 기온이 높은 30도대에서 낮은 40도대에 도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속도와 동일하게 옥수수가 10월 22일 현재 32% 파종되었다; 하지만 코르도바에서는 야외 작업이 겨우 2 포인트 진행되어 (16% 파종), 작년 속도보다 13 포인트 뒤떨어졌다. 해바라기 파종은 8 포인트 진행되어 40%에 도달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3 포인트 뒤진 것이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 지역 전역에서 계절성 소나기가 강해져서, 강우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지체되었던 대두 파종이 광범위하게 촉진되었다. 마토 그로소 동부, 마토 그로소 도 술, 고이아스 및 상 파울로와 미나스 제라이스에 있는 인근 지역에 내린 총강우량은 25~50 mm (지역적으로 100 mm에 근접) 였다. 여름 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파종이 계속 지연되었던 여러 곳에서 이 비가 계절 중 가장 많이 내린 비였다. 그 소나기들이 북동쪽으로 토칸틴스와 인근에 있는 피아우이 및 마란하오의 여러 곳들에까지 확장되었지만 바히아는 건조한 날씨로 만연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10월 23일 현재 대두 파종이 17 포인트 진전되어 25%에 도달했는데 작년보다 40 포인트 뒤쳐진 것이다. 이 우천성 날씨가 남동쪽으로 상 파울로와 미나스 제라이스까지 확장되어 사탕수수, 커피 및 기타 여름 작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더 남쪽으로 가면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비슷한 양이 기록되었지만, 여름 작물의 활착에 필요한 수분이 부족한 파라나에서는 대체로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 (낮 최고 기온이 낮은 섭씨 30도대에 도달)가 우세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0월 19일 현재 밀이 84% 수확되었다; 한편 첫 작물 옥수수와 대두가 각각 86% 및 32% 파종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10월 22일 현재 밀이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앞선 31% 수확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70% 및 5% 파종되었다.